

## 해방기 박태원의 문장론\*

문 혜 윤\*\*

### 요약

박태원의 문장론은 일제강점기 신문과 잡지에 산재되었지만, 해방기에 출간된 『중등문법』(1946), 『중등작문』(1948)을 함께 살펴야 전체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다. 그간 박태원의 문장론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김기림의 『문장론신강』 사이를 잇는 해방기 대표 문장론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박태원의 문장론에는 ‘표준’이 강조되었다. 조선어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였으며, 당시 형성 중이던 ‘표준’과 ‘규범’을 벗어난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한자어, 외래어, 번역어 등을 통해 타자성을 드러내는 실험을 계속하였다. 표현 범위의 확장을 통해 조선어 문장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즉 그 당시 박태원은 ‘표현=묘사=기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박태원이 간행한 두 권의 『중등문법』, 『중등작문』은 타자의 흔적을 억압하고서 성립된 ‘국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두 권의 단행본 속에는 ‘어떤 국어’를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이미 수립된 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해방기에는 국어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를 국어의 성립으로 보지 않았으며, 문장 쓰기가 작법 혹은 수사(修辭) 등의 기술적 문제로 축소되었다. ‘국어’와 ‘문장’이 구분되는 분기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조선어학회사건, 해방기, 박태원, 문장론, 국어,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중등문법』, 『중등작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189)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부교수

목차

1. 조선어학회사건이 만든 국어의 공통감각
2. 해방기 문학자의 대응과 박태원
3. 해방 이전의 문장론: 조선어의 결핍을 메우는 타자성의 도입
4. 해방 이후의 문장론: 타자의 흔적을 지우고 온전한 국어가 되는 과정
5. 국어와 문장이 분리되는 시간, 한글간소화파동까지

## 1. 조선어학회사건이 만든 국어의 공통감각

지도에 없던 나라의 언어인 ‘조선어’가 해방 후 ‘국어’로 복권되는 것은 시급하고 막중한 문제였다. 해방 후 국어 회복을 위한 활동의 전권은 조선어학회가 쥐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주요한 계기는 1942년에 시작되어 해방까지 지속된 조선어학회사건이었다. 애초에 조선어학회사건은 함경남도 홍원 지방 학생들의 소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sup>1)</sup> 그것이 함흥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 근무했다가 사건 당시 조선어학회의 일을 보고 있던 정태진으로 옮겨가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검거·투옥되어 치안유

1) 조선어학회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홍원 사건에 대한 회고가 사건의 당사자와 옥고를 치른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회고의 특성상 서로 어긋나는 진술이 존재하므로 사건의 전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함경남도 홍원에서 열차 통학을 하던 여학생(박영희 혹은 박영옥)이 조선말로 대화한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도 하고, 남학생(박병엽 혹은 백병화)이 친구와 소곤거리며 태극기 그리던 것을 열차에 탔던 이동경찰이 붙잡았다고도 하고, 박병엽의 방을 뒤지다가 발견한 조카 박영옥의 일기장에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문구 때문에 사건이 확대되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장신은 사건 관련 회고가 “누가(박영옥, 박영희, 박병엽, 여학생들), 언제(1942년 봄, 여름방학), 어디서(기차 안, 전진역 앞), 무엇을(말대화, 글-연애편지와 일기장), 어떻게(조선어 사용, 불온한 내용)에 따라 무수한 조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조선어학회사건의 발단과 민족서사의 탄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112-113면). 이 어긋나는 지점들을 탐색하여 조선어학회사건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연구로 황호덕, 『엽서의 제국, 전체주의 국가의 공사개념』, 『별레와 제국』, 새물결, 2011; 장신, 앞의 글 등이 있다.

지법 1조의 적용을 받는 시국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검거되었던 회원들 중 16명이 예심에 회부되었고 1943년 9월 30일 예심이 종결되었다. 이 중 12명은 공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943년 12월과 1944년 2월에 이운재와 안징이 옥사했고,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월까지 공판이 진행되어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해방을 맞아 8월 17일 함흥 감옥을 나왔다.<sup>2)</sup> 이들은 독립투사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선어학회사건은 그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에 맞춤법과 표준어 제정에 힘쓰며 한국어의 문어 정착에 기여하였다. 조선어학회사건이 발생하기 전 조선어문운동은 ‘조선어문의 근대화’라는 근대적 목적과 함께 ‘어문민족주의’라는 민족적 목적이 함께 결합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조선어문의 근대화가 강조되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 자체가 민족의 재건에 기여한다는 민족주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sup>3)</sup> 투옥되었던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조선어학회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어학회사건 당시 변호인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은 재판에서 사용된 술어였을 수 있으나, 이 견해가 해방 후 조선어학회 인사들의 회고에 여전히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sup>4)</sup> 조선어문 연구를 독립운동으로 직결시키는 진술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조선어학회사건을

2) 조선어학회사건의 진행 과정은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한글학회, 1971, 12-19면;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선어학회사건의 경위』, 『어문연구』 11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3, 465-467면 참조.

3) 미쓰이 다카시는,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되었던 조선어학회 활동이 맞춤법 통일, 표준어 사정 등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총독부와의 대립뿐 아니라 총독부와의 협력도 필요했음을 언급하고 있다(『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소명출판, 2013).

4) 조태린, 『조선어학회사건 관련 언어 민족주의 담론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7, 199-203면 참조. 해방 후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학회의 재건 과정에서 “정치 운동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의”한다(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 · 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면).

거치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어학자보다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풍기게 되었다.<sup>5)</sup>

이렇게 조선어학회가 민족적 운명을 떠안은 단체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조선어학회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와 연관된다. 회고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언급된 시기 중 가장 빠른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홍원 사건은 1942년 3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4명의 학회원들이 해방되면서 출옥했으나, 조선어학회사건은 만 3년~3년 반 정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던 때이다. 조선어는 이미 1938년 3차 교육령에서 수의과목으로 전락하였다가, 1940년 4차 교육령을 통해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다. 194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고, 1941년에는 조선어 문학잡지 『문장』, 『인문평론』이 폐간되었다.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전쟁의 패색이 짙어졌으며, 거의 전 계층이 강제 징용 및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사이 문인들은 절필을 선언하거나, 낙향하여 칩거하거나, 국책 지향의 글을 발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조선어학회사건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필연적인 민족 서사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맞춤법과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벌인 활동들은, 조선어학회가 해방 후 국어 회복의 급선무를 담당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닌 단체라는 점을 알려준다. 하지만, 조선어학회와 대립했던 조선어학연구회 등 여타 다른 단체들이 존재했고, 조선어학회식의 통일에 반대하는 논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sup>6)</sup>, 해방 후 국어의 수립을 조선어학회가 전담해야

5) 조선어학회 회원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극로나 김두봉 등의 활동과 행적에는 독립투사로서의 면모가 확연하다. 그러나 단체로서 조선어학회가 벌였던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와 대립하였던 조선어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혜운,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미쓰이 다카시, 앞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할 필연성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조선어 학회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조선어학회사건 때문이었다. 즉 조선어학회사건은 근대계몽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된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의 재건 방향과 위상을 한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가 벌인 활동—한자 폐지, 가로풀어쓰기—은 일제강점기 어문운동의 주요한 논의를 반복한 것이지만 해방 후에는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1945년 8월 20일, 해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른 조선어학회 인사 4명을 위시하여 학회가 재건되었다. 조선어학회는 국어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교과서 편찬, 교원 양성, 사전 편찬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었고, 대중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어 청산을 목표로 하는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이 진행되었다.<sup>7)</sup> 그런데 조선어학회 회원인 최현배, 장지영 등이 미군정 문교부 편수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과 정부의 어문정책이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되었다. 1946년 6월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일어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정화할 방침을 세우고, 938개의 일본어를 일소하기 위한 정화안을 마련하였다.<sup>8)</sup> 이를 심의하여 1948년 6월 『우리말 도로 찾기』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1945년 12월 문교부 산하 조선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한자 폐지와 가로쓰기[橫書]를 결의하고 1948년 『한자 안 쓰기 이론』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최현배가 1947년 간행한 『글자의 혁명』을 요약·압축한 것이었다. 해방기 조선어학회와 문교부는 일본어 및 일본어에서 전래된 한자, 그리하여 한자 전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어를 재건하고 있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여러 부문의 국가 재건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한글, 한자, 영어 등이 뒤섞인 격렬한 뼈라 공방전이 벌어졌

7) 최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325면. 해방 직후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앞의 책; 정재환, 앞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8) 최경봉, 앞의 책, 326면.

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자 신조어들이 생겨났다.<sup>9)</sup>

해방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믿음이 중간파의 실패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한 역사학자의 추측도 있다.<sup>10)</sup> 해방기는 극좌와 극우의 대립이 팽배했다. 이 시기 조선어학회의 활동도, 비록 정치적 중립을 결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국어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정신을 복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국어에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공통 감각을 형성시켰다. 다시 말해 해방 이전 조선어학회의 ‘어문 민족주의’ 성향은 조선어학회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해방 이후 ‘어문국가주의’로 칭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2. 해방기 문학자의 대응과 박태원

해방 후 문학자들의 대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말기 절필을 선언하거나 시골에 칩거했던 문인들도 서울로 올라와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6일 조선문학건설본부가 만들어지고, 이틀 후인 8월 18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부분을 망라한 상위단체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수립되었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중앙위원장은 이태준, 서기장은 이원조였으며, 소설부 위원은 이기영(위원장), 김남천, 박태원, 안희남, 한설야, 시(詩)부 위원은 김기림(위원장), 김광균, 오장환, 임화, 정지용이었다.<sup>11)</sup>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문학동맹을 합쳐 ‘조선문학가동맹’이 만들어진 것은 1945년 12월 6일이었다. 이러한 문학자 단체에서 ‘조선문화의 해방’, ‘조선

9) 이에 대해서는 고길섭, 『빠라가 뿌려준 상상력』,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엘피, 2005, 17-37면; 김현식·정선태 편저,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참조.

10) 김기협, 『해방일기 1』, 너머북스, 2013, 7-8면 참조.

11)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결성』, 『매일신보』, 1945.08.24.

문화의 건설', '문화전선의 통일'이라는 대명제 이외에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나 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문인들이 문학의 건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좌담회에서 제출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한자 폐지'와 '가로풀어쓰기'가 주요한 논쟁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일제강점기 문인들의 주요 인식 중 하나는 조선어의 문어 정착을 위한 창작, 즉 '문학 창작=조선어 문장 형성'이었다. 근대계몽기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국문 사용에 눈을 뜬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인들이 자신들의 문장론을 드러내는 글들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문인의 문장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방 이전 이태준의 『문장강화』, 해방 이후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이다. 『문장강화』는 1939년부터 잡지 『문장』에 연재하다가 1940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일제강점기 대표적 문장론이다. 『문장론신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 출간되었다. 박태원의 문장론은 『문장강화』와 『문장론신강』 사이의 시기인 해방기에 간행되었다. 박태원은 일제강점기에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 대표 문인이면서도 신문이나 잡지에 단편적으로 발표한 문장론만 남아 있었는데, 해방 이후 『중등문법』(1946)과 『중등작문』(1948)을 연달아 간행하였다. 이태준의 『문장강화』에는 일제강점기의, 박태원의 『중등문법』과 『중등작문』에는 해방기의, 그리고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어문정책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구인회의 멤버였으며, 소설과 시의 영역에서 언어 실험을 하던 시기가 동일하다. 팔봉 김기진이 제시한 '1934년경의 문인계보'에는 '김기림, 박태원, 이태준'이 기교주의자로 분류되어 있다.<sup>13)</sup> 일제강점기 카프와 비-카프의 대립구도가 드러났던 문단의 상황

12) 이태준 외, 『벽초 홍명희 선생을 둘러싼 문학 담의』, 『대조』, 1946.1; 한설야 외, 『조선문학의 지향』, 『예술』 3, 1946.1에 한자 폐지와 횡서 문체가 제기되었다. 이 두 글은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Ⅱ』, 박이정, 2000, 474-494면에 실려 있다.

에서 ‘기교주의’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어감을 지니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단에서 “조선어로 문학을 한다는 것과 기교의 실험을 통해 한국어를 새로이 창조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다.”<sup>14)</sup> 박태원의 대표작이 양산된 1930년대는 조선어로 글을 쓰기 위한 여러 시도와 실험이 있었던 시기이고, 때로 그것이 ‘기교파’로, 혹은 ‘모더니즘’으로 설명되더라도, 그것은 조선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이 조선어문의 수립과 확보에 기울였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경성에서 태어난 박태원은 ‘대모테 안경과 감빠 머리’로 유행을 앞서가는 모던보이였다. 경성 거리를 산책하다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담소를 나누고, 글을 쓰는 모던한 취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외양과 취향의 모던함에 걸맞게, 그의 글 역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경성의 거리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담는 ‘고현학(考現學)’을 창작 방법론으로 삼은 실험적인 것들이었다. 카메라나 영화 기법의 문자로의 실현, 작가를 연상시키는 분신과 사생활의 노출, 하나의 문장을 길게 늘어 소설 한 편을 만드는 실험(『방란장 주인』), 명랑(유머) 혹은 우울을 실현하는 문장의 구성과 배치 등은, 박태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문장을 만드는 감각이 ‘새롭고 다른’, ‘선도적인’ 것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박태원은 일제 말기부터 『삼국지』, 『수호지』 등의 중국소설 번역에 힘쓰며, 딱히 절필이라고 할 만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다. 월북 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고, 눈이 먼 상태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을 완성하여 북한의 ‘출세한’ 소설가로 이름을 남겼다. 그의 언어 실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혹은 어떤 방식의 전환을 맞았는지 그의 해방기 문장론을 통해 살필 수 있을 듯하다.

박태원이 창작 행위의 질료로 삼았던 ‘언어’는 해방 이전에는 ‘조선어’였

13) 김기진, 『조선 문학의 현재와 수준』, 『신동아』, 1934.01; 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003, 189면.

14) 김미지, 『박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생』,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75면.



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어’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는 같은 언어로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언어가 하나의 굳건한 완결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변화되는 열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창작을 한 것이다. 작가에게 언어는 존재의 기투(企投)이며, 특히 박태원에게 ‘언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박태원의 해방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태원의 언어 실험이 꾸준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장에 대한 그의 자각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sup>15)</sup> 박태원의 문장론은, 이태준→박태원→김기림으로 이어지는 대표 문인의, 대표 문장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이 중에서도 가장 덜 알려진 박태원의 문장론을 살피고, 박태원의 문장론에 반영된 사회적·정치적 배경과 담론을 살펴 그의 문장론이 시대와 어떻게 교섭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해방 이전 단편적으로 산재되었던 박태원의 문장론을 모아 정리하고, 4장에서는 해방기 박태원의 문장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어린이일기』, 『중등문법』, 『중등작문』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태원의 언어 실험이 해방기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유지 혹은 전환되었는지 살피고, 박태원 문장론의 체계적인 맥락을 잡고자 한다.

### 3. 해방 이전의 문장론: 조선어의 결핍을 메우는 타자성의 도입

일제강점기 조선어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1) 조선어로 된 문장을 제대로 써 본 적이 없어서 나타난 조선어 문장 만들기의 어려움, 2)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국어’로 불릴 수 없었던 조선어의 처지 때문이었다.<sup>16)</sup>

15) 박태원의 문장론을 언급한 몇 편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본론의 각 장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16)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된 바 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이 명시된 임형택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이 대표적이다.

이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품었던 가장 큰 욕망은 어문 규범을 수립하여 조선어문을 표준화하고, 조선어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1930년대 작가들 창작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 ‘표준말사정(1936년)’ 등의 어문 규범과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출되었던 사회적인 담론들이었다.<sup>17)</sup>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 데 어문운동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당시의 발언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문인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아주 컸다. 문인들은 한편으로 조선어문 규범 수립 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자의 작품들을 통해 조선어문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박태원 역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조선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해방 이전 박태원의 대표 문장론으로 꼽히는 『표현·묘사·기교』의 첫 문장은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한 언급—“『한글맞춤법통일안』 부록, 문장 부호에 관한 대문에, ‘컴마에 대하여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 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이렇게 쓰이었는데”<sup>18)</sup>—으로부터 시작한다. 박태원은 늘 “문에 감상이란 구경(究竟) 문장의 감상”이라 강조하였고, 그에 걸맞게 작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문장’이었다.<sup>19)</sup> 1934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회 연재된 『3월 창작평』은 그 첫 회에서 앞으로의 작품 평가의 기준이 ‘문장’에 있음을 밝힌다. 대다수의 평자들이 “내용”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작품평을 하면서도 “형식”과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문장”에 집중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한다. 이 기

17) 이에 대한 내용은 문혜윤, 앞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1)』, 『조선중앙일보』, 1934.12.17.

19) 해방 이전 박태원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박태원, 『초하창작평』, 『동아일보』, 1929.12.16~1929.12.19; 박태원, 『문예시평』, 『매일신보』, 1933.9.20~9.21; 박태원, 『9월창작평』, 『매일신보』, 1933.9.22~10.1; 박태원, 『3월창작평』, 『조선중앙일보』, 1933.3.26~3.31;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12.17~12.31; 박태원, 『주로 창작에서 본 1934년의 조선 문단』, 『중앙』 2권 12호, 1934.12.

준에 따라 2회에서는 조사 ‘에’와 ‘의’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비판하고(김기진 『봄이 오기 전』), 3회에서는 지방어 대신 표준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석복진 『꽃 피었던 섬』), 4회에서는 간략한 문장의 중요성을(최독견, 『약혼 전후』), 5회에서는 언어의 선택, 즉 어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조벽암, 『실직과 강아지』).

일제강점기 박태원의 문장론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그의 언어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태원은 ‘표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표준’이라는 자장에 기대는 것이다. 박태원은 무엇보다 문장의 기본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이나 ‘표준어규정’ 등과 관련된 규칙의 준수를 의미한다. 문법이나 규정상의 오류에 대한 박태원의 지적은 엄격하다. 1930년대는 소리 나는 대로 쓰던 역사적인 표기법으로부터 조선어학회가 제시한 표의주의 표기법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많은 문학자들이 조선어학회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법적 오류와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작품이 발표되던 것이 현실이었다.<sup>20)</sup> 박태원은 ‘의식적인’ 조선어학회 통일안의 지지를 넘어 작품 내에서의 정확한 규정 적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주로 창작에서 본 1934년 조선문단』에서도 이무영의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비교’라는 단어를 써야 할 자리에 ‘비유’라는 단어를 쓴 것), 강경애의 문법상의 오류(“어느 구절에 잇서 문법상의 오류를 지적하게 되는 것은 슬픈 현상이다”)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말의 소리’를 문자로 정착시키는 문제, 즉 문장어의 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둘째, 박태원은 이데올로기와 표현, 혹은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에 기대

20) 박태원 초기 소설의 글쓰기 방법을 연구한 아이카와 타쿠야는, 1930년대 초반 조선어의 ‘규범’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위반’이나 ‘일탈’의 전제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402-403면). 그러나 조선어 규범 수립에 대한 지향은 공통의 인식으로 존재했던 것인바, 실제 글쓰기에서 비표준이 실현되더라도 표준에 대한 지향이 강렬한 시대였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있었다. 박태원은 그러한 문장 쓰기의 결과로, 가능한 한 정확한 진실(사실)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리티를 어떻게 재현하느냐의 문제이다.

같은 한마디 말, ‘어디 가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두 개 내용을 가리켜 낼 수 있을까?

‘말에 있어서, 그것은 지극히 용이한 일이다. 우리는 그 ‘어조’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어디 가니?’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글’에 있어서는?

나는, 아직까지, 그 두 경우를 구별하여 표현한 ‘글’을 보지 못하였다. 언제든, 같은 ‘어디 가니?’이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은 극히 적은 문제로, 아모러튼 좋은 것같이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표현에 있어, 우리는 가능한 한도까지의 정확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연구하여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에 있어, 그 내용의 분기점이 이미 그 ‘어조’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글’로 표현함에 있어, 모름지기 그 ‘어조’를 방불케 할 방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sup>21)</sup>

말은 어조를 통해 표현하고픈 곳(내용)에 도달한다. 말의 어조를 모방할 수 있는 글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박태원의 주장이다. ‘어디 가니’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가니’에 초점을 두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묻는 경우’와, ‘어디’에 초점을 두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에 따라 문장 표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전자의 의도를 반영하면 ‘어디, 가니?’와 같이 쉼표를 삽입하고 의문부호를 넣는다. 후자의 의도를 반영한다면 ‘어디가니’와 같이 띄어쓰기를 생

21)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1)』, 1934.12.17.

략하고 의문부호를 삭제한다. 쉼표나 물음표와 같은 “은갖 문장 부호의 효과적 사용은 사물의 표현, 묘사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완전하게 하여 놓을 것”<sup>22)</sup>이라고 박태원은 지적하였다.

『표현·묘사·기교』에서는 대화와 지문(작가 서술) 사이의 층위를 구분한다.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어디 가니’를 띄어쓰기를 생략한 ‘어디가니’로 표기하거나, ‘없소’에 된소리를 덧붙여 ‘없쏘’로 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맞춤법 규정을 무시한 예이다. 박태원은 이것이 소설 속 인물의 대화 부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대화뿐 아니라 지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아이스꾸리’와 ‘아이스크림’을 든다. 꼭다점에서 신사, 숙녀가 먹는 것 같은 ‘아이스크림’과 길가 좌판에서 동전 한 닢으로 아이들과 노동자가 사먹는 것 같은 ‘아이스꾸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 둘은 잘못된 표기가 아니라고 한다. 표준어/비표준어의 구분을 떠나 다른 기의(記意)를 반영하는 다른 기표(記標)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스꾸리’와 같이 ‘올바르지 않은’ 표기에 담긴 의미와 ‘아이스크림’과 같이 ‘올바른’ 표기에 담긴 의미가 사회적·계급적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기에도 역시 표준/비표준의 장(場)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의미, 리얼리티)에 가 닿을 수 있는 표현능(能)의 개발이 당대의 어문 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태준<sup>23)</sup>과는 달리, 박태원이 당대 어문운동과 가졌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은 많은 어려움

22) 같은 곳.

23) 구인회의 좌장이자 식민지 말기 『문장』지를 통해 한국 문단의 신인 발굴권을 가지고 있던 이태준의 문단적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런 그가 1930년대의 단편적 문장론들을 총괄하여 체계를 부여한 『문장강화』는 문장 쓰기에 대한 모범적 기술로 꼽힌다. 『문장강화』가 드러내는 주요한 논점을 박태원을 비롯한 당시의 작가들이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박태원과 이태준의 개인적 친분의 영향인지, 문장관의 공유 때문인지, 이태준의 『문장강화』에는 박태원의 작품이 예문으로 7회 등장한다. 정지용이 16회, 이광수가 10회, 이상이 8회 인용되어 박태원은 네 번째로 많이 인용되었던 작가이다. 『문장강화』는 맞춤법, 표준어, 구두점 등의 어문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강조하는, 일제강점기 어문운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책이다.

을 이겨내고 맞춤법통일안과 표준어사정을 이루어냈는데 그 과정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개재되어 있었다. 맞춤법 논쟁은 전 조선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러한 논쟁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 문학가들은 78명의 연명으로 한글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sup>24)</sup> 박태원의 이름도 이 연명된 문학자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태원 개인의 돌출적인 작업이 아니라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글(책)과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방 이전 박태원의 문장론이 드러낸 '표준'에 대한 인식,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타자성을 드러내는 실험은, 이태준 『문장강화』의 논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언문일치의 (대중적) 문장을 강조하면서도 작가들의 예술 문장을 전범으로 삼았던 모순은, 박태원의 일제강점기 문장론에서도 발견된다. 박태원은 일반 독자보다 오히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장론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박태원 문장론의 많은 예문이 (이태준처럼) 작가들에게서 나온 것은 작품평을 위주로 한 글이었다는 점에서 수긍 가능하지만, 『표현·묘사·기교』의 경우 글의 뒷부분은 문장에 대한 논의로부터 전환되어 '단편의 결말', '심경소설', '이중노출' 등 작품 기법이나 기교를 설명한다거나 '청년작가', '문예가를 직접 지목하여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태원과 이태준의 이러한 모순은, 당대 조선어 문장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조선 문학 수립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어문'은 그 자체로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결핍이 일제강점기 한국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인들이 합심하여 조선어학회의 규범 제정을 도왔던 것은 조선어의 결핍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리고 조선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한

24) 강경애 외 77인,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 『동아일보』, 1934.7.10.

실험을 계속했는데, 박태원 작품에서 시도된 ‘경알이’의 실험, 외국어(외래어)의 도입<sup>25)</sup>, 외국 작품 번역을 통한 어휘의 창조 등을 그 예로 삼을 수 있다. 표준에 대한 의존이나 번역어, 외래어 등이 조선어와 공존하는 방식을 통한 타자성의 실험은, 조선어를 문학어로서 성립시키고자 한 문학인의 노력이었고, 그것이 문학자의 작품 쓰기가 그 자체로 조선어문운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아직 없는) 표준에의 의존과 ‘타자성’의 충돌(crash)이 해방 이전의 조선 문학과 조선어문운동을 추진했던 원동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 4. 해방 이후의 문장론: 타자의 흔적을 지우고 온전한 국어가 되는 과정

일제강점기 조선어문은 그 자체로 단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닌, 번역어투의 개입, 외래어의 도입,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타자성의 집결소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 행해진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은 일본어 잔재의 청산과 한자의 폐지를 통해 ‘우리말’을 ‘다시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국어의 온전하고 단일한 실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해방 후 ‘도로 찾자’ 하는 ‘우리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말은 일본어가 ‘아닌’ 것, 한자가 ‘아닌’ 것으로 포장되었다.

25) 김미지, 『1930년대 문학 언어의 타자들과 ‘조선어’ 글쓰기의 실험들』,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70-281면 참조. 김미지는 “조선어는 식민지의 언어를 흡수하는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의 동일자적 기획을 지연시키는 타자이면서, 또한 외래적인 것들로부터 견고하게 견지(보존)되어야 할 무엇으로 인식되며 다른 언어들을 타자화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같은 글, 268면)”고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 1) 박태원과 최영해

해방기 박태원은 최영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듯하다. 최영해는 조선 어학회 간부이자,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 화려하게 귀환하여 문교부 편수국장 자리에 오른 최현배의 장남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정음사라는 출판사를 차려 아버지의 『우리말본』을 출판하였고, 아버지의 출옥 이후 출판사를 부활시켜 한국 출판업계의 큰 흐름을 만들었다. 해방기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집필하여 미군정에 기증한 공식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어과 부교재들이 대량으로 발간되었다.<sup>26)</sup> 박태원은 정음사에서 국어 수업의 부교재로 사용되는 『중등문법』(1946)과 『중등작문』(1948)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한 번 발행한 바 있는 『삼국지』를 다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삼국지』를 완성하지 못한 채 박태원이 월북하자 최영해가 뒷부분을 마저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더구나 『중등작문』의 예문 중 하나는, 『중등문법』이 발간되었을 당시 정음사 부독본총서 중 한 권이었던 이원표의 『조선속담집』에서 뽑힌 것이어서 발간 시기의 상거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태원에게 최영해가, 교류 범위가 넓었던<sup>27)</sup> 문단 관계자 중의 한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 이상이었는지를 드러낼 만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원의 큰아들 박일영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내가 국민학교 4학년일 때, 그리고 5학년 올라와서의 일인데, 우리 학교 뒤에 사시던 정음사 최영해 사장님 댁으로 너댓 번 등푼길에 원고를 날랐던 일

26) 이에 대해서는 문혜운,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박일영, 홍정선 감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16, 138면. 이태준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상허를 친구 이상으로 경외하였”다고까지 평가하였다(같은 책, 138-139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대학 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다방으로 거리로 배회하다가 씨가 퇴근할 무렵 찾아가는 신문사 친구가 바로 김 시인” 즉 김기림이었다고 한다(같은 책, 141면).



이다. 4백 자 원고지 2백 매는 실히 되어 반으로 접었다 해도 부피가 꽤 되는 무거운 것을 들고, 해화국민학교 뒤 축대가 높은 적산가옥에, 당시 저명한 한글학자이며 『우리말본』의 저자이기도 한 외솔 최현배 선생님을 모시고 사셨던 듯, 문패는 ‘최현배’ 석 자가 가로글씨로 써어 있던 것이 기억에 또렷하다.”<sup>28)</sup>고 회고하고 있다. 박일영은 1962년부터 7년간 정음사의 편집자로 일하기도 하였다.<sup>29)</sup>

박태원과 최영해의 관련은 『어린이신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린이신문』을 발간한 고려문화사는 1945년 10월 1일 창립한 해방기 대표적인 출판사였다. 『어린이신문』은 1945년 12월 1일 창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주간으로 발행되었다.<sup>30)</sup> 창간호인 12월 1일 지면에서부터 박태원과 최영해의 글이 함께 실렸다. 최영해는 본래 전공이 문학이었고 삼사문학 동인으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지만 출판 관련 인물로 언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국어교실』을 25회 연재하였다. 『국어교실』 1회~3회에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진 이유가 중국글자인 한문을 빌려 쓰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글이 널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연산군 때의 빼라사건이라고 언급한다. 이 빼라가 한글로 쓰여 연산군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한글을 쓰고 배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한글과 한자를 대립시키는 시각이 드러난다. 4회에서 주시경을 비롯하여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에 의해 한글의 앞날이 밝아졌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야기를 다한다면 길겠으니 이만하고 우선 여러분이 배우게 될 『초등국어교본』, 『한글첫걸음』이 나올 동안 다함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sup>31)</sup>라고 하면서 한글 자모를 읽고 쓰는 법부터 가르친다. 5회부터는 된소리 적는 법, 토(조사)에 대한 문법적 설명,

28) 같은 책, 170면.

29) 같은 책, 226면.

30) 고려문화사의 창립일, 『어린이신문』 창간일 등은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50-53면 참조.

31) 최영해, 『국어교실 (4)』, 『어린이신문』, 1945.12.22, 3면.

소리는 같으나 받침을 달리 적어 의미를 구분하는 ‘어원을 밝히는’ 표의주의식 받침 설명, 사이시옷 적용 방법 등을 설명한다. ‘국어교실’이 의도했던 것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한글 문제의 쟁점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조선어학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최영해가 맡았던 것이다.

같은 지면에 실린 박태원의 『어린이 일기』<sup>32)</sup>에는 한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어 잔재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만 드러난다. “나는 일본말이 그저 입에 배어서, 국어 시간에 무심코 ‘센세이!’하고 부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sup>33)</sup>와 같은 식이다. 최영해의 글에 비해 연재도 연속적이지 않았고, 그 안의 서사도 연속적이지 않았다. 같은 지면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박태원의 『손오공』 번역이 연재되기도 하였다. 최영해의 『국어 교실』과 동일한 점은, 두 글 다 가르치고배우는 관계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박태원의 『어린이 일기』에서 일기를 작성하는 화자 영이는 식모아이에게 밤마다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노릇을 한다. 최영해의 『국어 교실』은 그 신문을 읽는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글의 주요 문제(조선어학회의 주요 주장)를 쉽게 설명한다. 해방 후 ‘국어’ 수립에 대한 열기와 노력이 느껴지는 지점이다.

## 2) 『중등문법』과 『중등작문』이 보여주는 국어 글쓰기

해방 직후의 많은 작가들이 국어 교과서의 부족으로 교과서를 급조하였다. 해방 이전 단행본으로 출간한 문장론 책이 없었던 박태원은 “옥구(旭丘) 중학에 밤이면 나가 조선말 강습”<sup>34)</sup>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부교

32) 마끼세 아끼코, 『해방기 박태원과 국어교과서』, 『구보학보』 9, 2013에서 『어린이 일기』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33) 박태원, 『어린이일기』, 『어린이신문』, 고려문화사, 1945.12.01, 4면.

34) 박일영, 앞의 책, 163면. 옥구중학은 지금의 경동중고등학교라고 한다.

재를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정음사에서 간행한 『중등문법』(1946)과 『중등작문』(1948)이다.<sup>35)</sup>

이 두 단행본의 특징은 첫째,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잡지 『문장』에 발표했던 글을 전면 수록한 것에 비하면, 박태원의 문장론은 해방 이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여러 작품평이나 문장론을 재수록하지 않고 해방기에 새로 작성했다는 점이다. 국어 교과서를 시급히 만들어야 했던 해방기의 절실한 요구로 일제강점기에 출간되었던 독본들이 그대로 혹은 몇몇 예문의 수정만으로 재출간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박태원은 그 경우를 달리한다. 둘째, 한 작가가 ‘문법류’인 『중등문법』과 ‘강화류’인 『중등작문』을 모두 출간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어 문장에 대한 규범이나 이상을 언급하는 작가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반영으로 조선총독부 편찬의 공식 교과서 『조선어독본』과는 별개의 민간 편찬 독본집이 많이 발행되었다. 이것들은, 좋은 글들을 뽑아 예문들만을 엮어 만든 ‘문법류’(흔히 ‘○○독본’이라는 제목이 붙었다)와 작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진술하여 밝히는 ‘강화류’(대표적으로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있으며, ‘○○학습서’와 같은 제목이 붙었다)로 나눌 수 있다. 『중등문법』은 예문들의 묶음만으로 구성된 ‘문법집’이다. 『중등작문』은 예문과 함께 작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과 설명이 곁들여진 작문 학습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박태원의 문장관을 살필 수 있다.

『중등문법』은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작가의 머리말이나 일러두기도 없으므로, 박태원의 문장관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실린 예문들의 특성을 추출하는 수밖에 없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있으나, 각 부를 분류하는 기준인 제목이 따로 달려 있지 않다. 단, 제1부와 제2부에서 예

35) 『중등문법』에 대한 연구로는 마끼세 아끼꼬, 『해방기 박태원과 국어교과서』, 『구보학보』 9, 2013; 문혜윤,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이 있다. 『중등작문』에 대한 연구로는 류수연, 『박태원의 『중등작문』과 글쓰기 방법론』, 『근대서지』 9, 2014가 있다.

문을 선별하는 기준이 동일하며, 다른 것은 예문의 ‘길이’였다. 제1부의 예문은 길고, 제2부는 각 예문의 문장이 1개~6개 정도 되는 짤막한 것들이었다. 제1부와 제2부의 예문 선별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제2부의 장별 제목들로 알 수 있다.<sup>36)</sup>

이에 비해 『중등작문』은 작문의 방법에 대한 직접적 기술이 들어가 있어 『중등문법』과 책의 형태가 다르다. 말과 글의 중요성 및 차이를 이야기하고,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을 말하고, 문종별 글쓰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작문법 책이다. 『중등문법』과 『중등작문』은 출간 시기가 1946년과 1948년으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얼마 전 발굴된 『중등작문』의 판권에 따르면 출간일은 1948년 9월이었다.<sup>37)</sup> 그러나 설명의 비중보다 예문의 제시로 설명을 대신하려는 『중등문법』의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 『중등문법』에 실렸던 예문이 『중등작문』에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시기에 쓰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특히 이 추측은 『중등작문』의 목차 중 작문법과 동떨어진 ‘제2 가을’이라는 항목 때문에 보다 확실해진다.<sup>38)</sup> ‘가을 하늘, 가을의 향기, 가을의 풍미, 가을의 풍물’ 등의 소항목을 따로 붙여 예문을 분류하고 있는데, 설명 없이 총 5개의 예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고, 그중 예문 4개가 『중등문법』의 것과 동일하다. 『중등문법』 제1부의 1장~4장이 봄, 여

36) 제2부에 실린 글들을 분류한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5. 해·달·별·하늘·구름, 6. 새벽·아침·낮·저녁·밤 7. 비·우뢰·바람·눈·서리·얼음 8. 바다·배·섬·항구·강, 9. 거리·길·공원·산·들, 10. 집·촌락, 11. 기차, 12. 산책·유산·등산, 13. 장마·가물·큰물·불, 14. 생활·근로·가난·병. 우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신고, 자연 현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과, 자연과 접한 거주지의 풍경, 그리고 생활로부터 벗어난 자연에 대한 감상(여행, 취미), 자연채해, 및 생로병사 등의 인간사를 조망하는 글을 실는다. 2부의 예문 선택과 분류의 기준은 1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7) 박태원, 『중등작문』, 『근대서지』 9, 2014, 1000면.

38) 『중등작문』의 목차는 제1 말과 글, 제2 가을, 제3 마음의 표현, 제4 진실, 제5 삼다주의, 제6 사생, 제7 관찰, 제8 묘사, 제9 구두와 부호, 제10 기사문, 제11 서사문, 제12 서정문, 제13 감상문, 제14 기행문, 제15 서간문, 제16 해설문, 제17 평론문의 순이다. 이 중 ‘제2 가을’이 전체의 체재와 가장 동떨어져 있다.

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예문들의 모음이고, 제2부의 1, 2, 3, 4장에 직접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박태원이 계절이라는 소재를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등작문』에는 이태준의 『문장강화』에 실렸던 예문들이 그대로 들어간 사례도 상당하다. 『문장강화』의 예문과 같은 경우로는, 염상섭 소설 『전화』, 이병기 수필 『건란』, 이상 수필 『산촌여정』, 이효석 소설 『돈』, 유광렬 기행문 『행주산성전적』, 최학송과 정지용의 편지, 홍명희 수필 『온돌과 백의』 등이 있으며, 이태준 『서간문강화』(1943)에서 빌려온 편지 예문도 있다. 이태준과 박태원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태원의 해방기 문장론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이태준의 『문장강화』와는 다른 해방기 문장론만의 특색을 지닌다.

우선, 박태원은 『중등작문』의 1장에서 ‘말’의 우위성을 언급한다. 표정, 손짓, 몸짓 등의 몸을 이용한 표현, 음악, 회화 등의 언어 이외의 도구를 이용한 다른 예술의 표현은 복잡한 의사 전달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한다. 말과 글을, 음악, 회화보다 상위에 있는 표현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논문, 소설, 수필, 시의 한 구절씩을 인용하며 “글이란 어떤 형식이든 모두 말의 기록(제1)”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은 『문장강화』의 시작과 동일하다. 그러나 『문장강화』는 말과 글의 다름을 언급하면서 작문법을 익힐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반해, 『중등작문』은 억지로 꾸미지 말고 “본 대로 느낀 대로(제3)” 쓰면 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 짓는 법을 배우면 글을 더 잘 쓰게 된다는 격려가 아니라, “오직 마음이 진실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고 “글이 서투른 것을 결코 부끄러워 할 바가 아니다.(제4)”, “글을 쓰는 데에는 무엇보다 우선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한다(제3)”는 점을 강조한다. 표현의 가장 최고의 경지를 ‘언어(말)’로 생각하는 것이다. ‘문장작법’을 강조하는 이태준에 비해,<sup>39)</sup> 박태원은 ‘문장작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태준은 ‘삼다주의’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작정 많이 읽고, 짓고, 생각하지 말고 문장작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sup>40)</sup> 반면, 박태원이 글 짓는 법으로 제시한 것은 많이 읽고, 짓고, 생각하는 ‘삼다주의’였다.

『중등작문』의 제6 사생, 제7 관찰, 제8 묘사는 ‘관찰’을 열심히 해야 하며, 관찰한 그대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생’이며, 그 결과는 ‘묘사’라는 점을 연결하여 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의 선후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찰’과 ‘묘사’를 강조하는 이태준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중등작문』이 전체적인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2.가을’이란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거니와, 『중등문법』에서 주요한 예문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 ‘해, 달, 별, 하늘, 구름’이나 ‘비, 우뢰, 바람, 눈, 서리, 얼음’ 등과 같은 자연 현상과 날씨, ‘거리, 길, 공원, 산, 들’과 같은 산책과 여행 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박태원의 ‘진실’과 ‘묘사’는 감정이나 감각의 미세한 분화에서 비롯된다. 『중등작문』의 ‘2.가을’처럼, 『중등문법』에도 계절, 날씨, 자연 등을 통해 느끼는 감정의 분화, 다소 과도한 감정의 분화가 주를 이루는 전체의 맥락과는 다른 ‘화재와 홍수, 가뭄’ 등의 재해, ‘병, 죽음, 가난’ 등의 문제가 제1부와 제2부에 각각 달려 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등작문』의 ‘제4 진실’ 장에 할애하고 있는 ‘동심’과 ‘생활고’이다.

아동의 세계, 아동의 심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려져 있나를 보라. 물

39) “한 구절, 한 부분인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체적인 글에 있어서는, 전체적이며 생명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 말에서보다 더 설계와 더 선택과 더 조직, 발전, 통제 등의 공부와 기술이 필요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필요되는 공부와 기술을 곧 문장작법이라 대명할 수 있을 것이다.(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8면)”

40) “글 짓는 데 무슨 별법이 있나? 그저 수굿하고 다독다작다상량하면 고만이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다. 생이지지(生而知之)하는 천재라면 오히려 삼다의 방법까지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배워야 하는 일반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리나 행동이나 모든 표현이 기술화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견해와 이론, 즉 작법이 천재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8면)”

론 아동의 심리를 이렇듯이나 적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작자의 뛰어난 솜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재주나 솜씨만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에 대한 작가의 진실한 태도, 동심에 파고들어 작자 자신이 아동이 되어 버린 그 진실한 태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sup>41)</sup>

마음과 글의 직접적 연결, 마음(진실)의 표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이 『중등문법』이나 『중등작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문들에는 식민지 시대에 ‘연(軟)한 ‘미문(美文)’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편지, 수필, 기행의 대표적 사례들이 『중등문법』과 『중등작문』의 예문으로 들어와 있다. 각각 편지, 수필, 기행의 유행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정국의 설립으로 재편된 근대 우편 제도와 더불어 연애 편지의 유행과 연애 편지집(대표적으로 노자영의 『사랑의 불꽃』)의 인기로 양산된 편지글들, 신문이나 잡지의 기획 코너로 수시로 만들어져 작가들에게 잡문으로 취급된 수필들, 국토종주의 민족적 관점과 근대적 여행의 탄생으로 작가들이 양산했던 기행들이 대부분의 예문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이러한 전통은 해방을 통해 ‘아름다운’ 국어로 소개되었으며, 이는 그러한 소재 자체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이나 감각을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관찰과 ‘묘사’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다.

『중등작문』의 제10~제17은 문종에 따른 쓰기 방법을 언급하는데, 기사문, 서사문, 서정문, 감상문, 기행문, 서간문, 해설문, 평론문을 분류하고는 있으나 각각에 속하는 예문들은 대부분 소설과 수필이라는 점에서 장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문에 대해 “(앞서 설명한) 그 사생문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기사문의 일종이다”, “사물을 그대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 글(제11)”라고 정의를

41) 박태원, 『중등작문』, 『근대서지』 9, 근대서지학회, 2015, 934면.

내린다. 반면에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기사문을 신문 기사로 한정하고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쓰인 “어떤 사건을 과장 없이, 장식 없이, 누락 없이, 분명 정확하게 기록하는 글”로 정의 내린다. 『중등작문』의 기사문 예시는 채만식과 최영주의 수필이었다.

박태원의 8가지 문종 구분에 비해,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일기문, 서간문, 감상문, 서정문, 기사문, 기행문, 추도문, 식사문, 논설문, 수필문 등의 10가지로 나누고 있다. 박태원은 글의 문종이라는 것을 다른 문종과의 비교 하에 그 특성이 드러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지, 이태준처럼 문종의 개념을 수립한 후 연역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태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은) 서사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 앞서의) 기사문이 사물을 정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서사문은 사건을 동적으로,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것(제11)”이라고 하였고, 서사문 다음의 서정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기사문이나 서사문,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관찰하고 쓴 글이라 하면, 곧, 서정문은 우리나라 내면의 감정의 움직임을 잘 살피어 이를 표현한 글”이라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리가 앞서 해설하여 온 기사문이나 서사문 또는 감상문 같은 것은, 독자의 이지에 호소도 하거니와 그와 동시에 감정과 상상에도 호소함으로써 지어진 글이요 서정문은 거의 감정과 상상에만 호소하여 지어진 글이다. 그러나 이 해설문으로 말하면, 오로지 독자의 의지에만 호소하여, 사물에 관한 지식이나 감상을, 혹은 알려주고 혹은 가르쳐 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제16)”고 언급한다. 서사문의 예문도 일기, 기행문, 소설, 동화, 전기 등에서 한 부분씩을 든다. 장르의 규정이 아니라 글의 성격으로 접근함으로써 “역사문이라든지, 또 신문 기사까지도 모두 서사문의 일종(제11)”이라고 말한다.

『중등작문』의 해방 후의 영향은 해설문과 평론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해설문에서는 해방 직후의 교과서 『초등국어』에서 인용된 「별나라」, 이원표의 『조선속담집』에서 인용된 속담, 홍명희의 「온돌과 백의」(『문장강화』



에 실렸던), 문일평의 수필 『백의금령』 등이 예문으로 실려 있다. 평론문에는 해방 직후 발간된 박치우의 『사상과 현실』(1946)이라는 책으로부터 두 편의 글이 인용되고 있다. 해설의 성격, 평론의 성격을 드러내는 글을 뽑은 것이지만, 해설의 예로 속담을 든다든가, 전반적으로 수필 형식의 글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은 여전하다.

이러한 박태원의 문장 소개는 식민지 시기 문인들이 대체적으로 표방했던 조선어로 글을 짓는 행위 자체를 ‘국어’의 수립으로 보았던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실제 식민지 시기의 독본들 중에는 여러 장르의 논설이나 설명 등이 한 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최남선의 『시문독본』과 같은 형태가 많았다. 그리고 공식 국어 교과서였던 『조선어독본』에도 장르 구분이 불명확한 채 여러 종류의 글이 실렸고, 심지어 속담이나 우화, 노래 가사 등도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국어 교과서들도 여전히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해방기에도 여전히 그러한 형태의 책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박태원의 『중등작문』은 국어의 수립이 국어로 글을 쓰는 행위와 반드시 연결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논점은 표준화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표면적으로 동일한 듯 보이는 국어에 대한 논의, 한자어 사용에 대한 논의는 이면적으로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회승은 해방 후 국어교육의 당면문제를 통일 문제, 순화 문제, 평이화 문제, 풍부화 문제로 들었는데, 사실상 표준어를 기반으로 하는 표기법 통일에 대해서는 유예의 입장을 보였다.<sup>42)</sup>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의’ ‘국어’는 식민지 시기의 흔들리는 타자성

42) 최경봉은 해방 이후 국어의 성격과 그에 대한 논의가 실상 근대계몽기의 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이회승(1955)에서는 위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국어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조선어적 성격을 가진 언어 전체를 위선 국어라고 정의하여 둔다’라고 하여 ‘표준어가 되어야 할 것’이란 조건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유예한다”고 하였다.(최경봉, 『해방 후 국어 의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어학』 74, 한국어학회, 2017, 217-218면)

을 숨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해방기의 ‘국어’는 해방처럼 그냥 떨어진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어로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언어와 문장 속에 기입된 수많은 ‘타자’의 흔적들을 두드러지지 않게 대패질을 하여 한국어 속에 ‘그냥 두게’ 된 것이다. 해방기의 ‘국어’는 ‘이미 있었던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문인들의 작문법은 ‘문학적인’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수사법’의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이다.<sup>43)</sup>

## 5. 국어와 문장이 분리되는 시간, 한글간소화파동까지

조선어/국어 문장의 형성기에 주목할 만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조선어/국어 문장론을 남긴 작가는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이 대표적이다. 이태준의 『문장강화』는 해방 이후 몇몇 예문과 진술이 국소적으로 변경되어 재간행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문운동의 결과를 집대성한 문장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박태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을 통해 뛰어난 문장 테크닉과 스타일을 실험한 조선어 문장의 개척자였으나, 작품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장관이 드러나는 글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산재된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의 문장관을 집대성한 단행본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에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급조한 『중등 문법』과 『중등작문』인데, 이는 해방기의 문장론으로 대표될 만한 것이다. 그간 박태원의 문장론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중등작문』의

43) 이는 한국에 수사법 이론이 언제 도입되었는가와는 다른 논의이다. 서구의 수사법과 장르, 양식 등의 소개는 이미 근대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본들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방기에 등장한 작문법 교과서에서는 민족어·국어의 범주와 표현·수사의 범주가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해방기에 출간된 작문 교과서들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정현숙, 『박태원과 국어교육』, 『구보학보』 10, 2014에서 소개한 작문 교과서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경우는 그간 박태원의 작품 연보에 올라가 있지 않다가 얼마 전 새로 발굴되어 소개된 바 있다(『근대서지』 9, 2014). 이 글에서는 박태원의 문장론을 살폈다.

박태원은 문단 권력을 욕심냈든지, 문학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타이프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작품을 통해 발언을 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기쁨을 느낀 천생 작가였던 것 같다. 때문에 그의 문장론들은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그 문장론들에서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것도 주로 작품의 예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박태원은 다양한 경향의 전변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내고 있었다. 순수 모더니즘의 실험적 작품, 탐정소설, 동화, 역사소설, 번역 등의 활동은 박태원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자, 그 나름의 시대를 염두에 둔(시대의 영향을 받는) 발언 방식이었다. 문장론 역시 그러한 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박태원의 문장론에는 시대의 흐름, 관심사(어문운동, 민족어, 국어)가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작품을 통한 설명과 발언이 존재한다. 박태원의 해방기 문장론들은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문장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야 할 사실은, 1948년의 시점 이후 어문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을 친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발생한, 결국 실패로 끝난 한글간소화파동을 즈음하여 언어와 정치의 결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혜령은 이를 “언어 내셔널리즘이 실정성(positivity)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sup>44)</sup> ‘언어 내셔널리즘’이란 용어는, 해방기에 그 이전의 어문운동과는 다른 형태의 어문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일제강점기의 ‘어문민족주의’와 해방 후의 ‘언어 내셔널리즘’의 분리를 가져온 것은, 한글간소파동 이전 조선어학회사건에서 비롯된

44) 이혜령, 「언어 법제화의 내셔널리즘」, 『대동문화연구』 58, 대동문화연구원, 2007, 185면. “언어 내셔널리즘의 실정화란 한 국민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규범을 그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의문 없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어학회의 영향력과 그로부터 촉발된 조선어학회의 이후 행보에서 이미 배태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의 조선어학회의 광폭 행보는 조선어학회의 영향력을 ‘국가’가 되가져오려는 행위를 촉발시켰다. 그러므로 한글간소화파동은 국어/국문의 인식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한글간소화파동 이후 언어의 규범이나 제도를 관장하는 쪽과 문학과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문학은 독립적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글간소화는 실패한 ‘파동’이면서 언어관을 전환시킨 ‘성공’이었다. 이태준, 박태원과 함께 구인회 멤버였던 김기림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 『문장론신강』을 출간하였다. 해방기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인식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장론신강』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결성』, 『매일신보』, 1945.08.24.  
 강경애 외 77인,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 『동아일보』, 1934.7.10.  
 문교부, 『우리말 도로 찾기』,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문교부, 『한자 안 쓰기』,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박태원, 『3월창작평』, 『조선중앙일보』, 1933.3.26~3.31.  
 박태원, 『9월창작평』, 『매일신보』, 1933.9.22~10.1.  
 박태원, 『문예시평』, 『매일신보』, 1933.9.20~9.21.  
 박태원, 『어린이일기』, 『어린이신문』, 1945.12.1.~1946.5.11.  
 박태원, 『주로 창작에서 본 1934년의 조선 문단』, 『중앙』 2권 12호, 1934.12.  
 박태원, 『초하창작평』, 『동아일보』, 1929.12.16~1929.12.19.  
 박태원, 『표현·묘사·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12.17~12.31.  
 박태원, 『중등문법』, 구자황·문혜윤 편, 경진출판, 2015.  
 박태원, 『중등작문』, 『근대서지』 9, 근대서지학회, 2014.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최영해, 『국어교실』, 『어린이신문』, 1945.12.1.~1946.6.29.

## 2. 논문 및 단행본

- 고길섭, 『빠라가 뿌려준 상상력』,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엘피, 2005, 17-37면.  
 김기협, 『해방일기 1』, 너머북스, 2013.  
 김동석, 『해방기 어문운동이 문학에 미친 영향—문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515-541면.  
 김미지, 『1930년대 문학 언어의 타자들과 ‘조선어’ 글쓰기의 실험들—박태원의 『천변 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65-285면.  
 김미지, 『박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생』,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73-96면.  
 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003, 188-912면.  
 김현석·정선태 편저,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류수연, 『박태원의 『중등작문』과 글쓰기 방법론』, 『근대서지』 9, 근대서지학회, 2014,

- 500-515면.
- 마끼세 아끼꼬, 『해방기 박태원과 국어교과서—『어린이 일기』, 『중등국어교본』, 『중등문법』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325-343면.
- 문혜윤,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73-101면.
-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 미쓰이 다카시, 임경화·고영진 역,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 박일영, 홍정선 감수,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문학과지성사, 2016.
-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박태원 초기 소설가 소설』,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397-436면.
-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09.
- 이용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1974.
- 이혜령, 『언어 법제화의 내셔널리즘—1950년대 한글간소화과정 일고』,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543-577면.
- 장 신,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과 민족서사의 탄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109-140면.
-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현숙, 『박태원과 국어교육—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105-134면.
- 정현숙, 『해방기 작문 교과서의 특징과 의의—『작문교본』, 『새중등작문교본』, 『작문독본』을 중심으로』, 『근대서지』 10, 2014, 250-263면.
-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Ⅱ』, 박이정, 2000, 474-494면.
- 조태린, 『조선어학회사건 관련 언어 민족주의 담론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7, 189-223면.
- 최경봉, 『해방 후 국어 의식의 형성과 전개—어문민족주의적 국어 의식의 계승과 변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74, 한국어학회, 2017, 199-232면.
- 최경봉, 『근대 국어학회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선어학회사건의 경위』, 『어문연구』 11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3, 465-467면.
-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 황호덕, 『엽서의 제국, 전체주의 국가의 공사 개념—조선어학회사건 재독』,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284-326면.

---

<Abstract>

## Park Tae-won's syntax in the Liberation period

Moon, Hye-Yoon

Park Tae-won's sentence theory was scatter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whole aspect by looking at *Model Sentences for Secondary School*(1946) and *Composition for Secondary School*(1948)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study on Park Tae-won's sentence theory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but it needs to be dealt with as the representative sentence theory of the liberation period between Lee Tae-June's *Mun-Jang-Kang-Hwa*[文章講話] and Kim Ki-Lim's *Mun-Jang-Non-Shin-Kang*[文章論新講].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Park Tae-won's sentence theory emphasized "standard". The act of writing in Korean was emphasized, and those outside the "standard" and "norm" that was being formed at the time were subject to criticism. Also, experiments revealing otherness through Chinese, foreign, and translated languages were continu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expression, the idea to raise the level of Korean sentence was revealed. In other words, Park Tae-won had the perception of "expression = description = technique".

The two volumes of *Model Sentences for Secondary School* and *Composition for Secondary School* published by Park Tae-w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ere based on the "Korean" established by suppressing the traces of others. In these two volumes, the question of

how to use the “already established Korean language” is more pronounced than the question of “what Korean” to establish.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act of writing in Korean was not considered a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sentence writing was reduced to technical problems such as rhetoric. It shows the branching point where “Korean language” and “Sentence” is separated.

key words: The Affair of Joseon Language Society, Liberation Period, Park Tae-won, syntax, Korean language, The Recovery Movement of Korean Words, *Model Sentences for Secondary School*, *Composition for Secondary School*

투 고 일 : 2020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9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